



청주서 ‘낸드 초격차’ 승부수… 71兆 생산유발

(2023년까지)

신규 반도체공장 M15 준공식

文 대통령 “정부, 지속적 지원할 것” AI·5G 등 수요 차질없이 대응 준비

SK하이닉스가 10월 4일 충북 청주에서 신규 반도체 공장 M15 준공식을 열었다.

‘함께 여는 미래, 새로운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이사, 협력사 및 지역 대표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환영사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을 주로 설명했다. 최 회장은 “넓은 의미의 인프라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기업자산을 공유인



준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최태원 회장.

프라로 전환하는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면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기술과 지식 인프라를 공유해 국내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SK하이닉스의 지속적인 투자계획을 응원하며,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과 내외빈

/SK하이닉스

M15의 가동을 알리는 첫 웨이퍼 투입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일반적으로 참가하는 사내 경영진 외에도, SK하이닉스 20대 직원 2명과 협력사 및 지역 소상공인 등 사외 인사 4명이 동참했다.

행사에 참가한 협력사 TEMC의 유원양(42) 대표는 “SK하이닉스의 기술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어 여러 좋은 기회가 열

렸고, 향후에도 동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으며 청주시업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대표 윤기순(55) 씨는 “M15 공장 가동으로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새 공장에서 일하게 될 SK하이닉스 신입사원 50여명도 행사에 참석해 미래에 대한 각오와 포부를 밝혔다. 그 가운

데 신입 여성 엔지니어 유경아씨는 “제일 잘나가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격려해줬다”며 “더 노력해서 더 많은 여성엔지니어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2023년까지 M15가 일으킬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로 21만 8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와 70조 9000억원의 생산유발, 25조8000억 원의 부가가치유발을 예상했다. 실제 이번 M15는 건설 과정에 160여 개 협력사가 참여하고 연인원 240만 여 명의 인력이 투입되었다.

SK하이닉스측은 “빅데이터, AI, 5G, 자율주행자동차 등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함께 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미세공정 기술 적용, 3D 낸드 전환 등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과거처럼 공급이 대폭 증가하기는 쉽지 않으나, 고객 수요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도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SK하이닉스에 준공한 'M15' 반도체 공장을 찾아 생산 공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회장의 하이닉스 사랑 인수 6년만에 주력사로 ‘우뚛’

SK하이닉스가 4일 충북 청주 공장에서 개최한 ‘M15’ 생산라인 준공식에 최태원 그룹 회장이 직접 참석하면서 최 회장의 ‘하이닉스 사랑’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2011년 약 3조4000억원에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해 ‘SK하이닉스’로 이름을 바꿨다.

에너지·화학·통신 중심이던 그룹 구조에 반도체를 추가해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한다는 전략이었으나 재계 일각에서는 ‘승자의 저주’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듬해인 2012년 SK하이닉스는 2천 273억원의 영업이익자를 냈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슈퍼호황’ 등에 힘입어 눈부신 실적 성장을 이루면서 명실상부한 그룹 주력사로 거듭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1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룹 계열사 가운데 압도적인 실적 1위를 기록했고, 그룹 내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면서 사실상 대표 계열사로 우뚛 섰다.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입양 결단’을 내린 최 회장 입장에서 SK하이닉스가 ‘최고의 효자’가 된 셈이다.

최 회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때 해외 매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적자 기업이 최첨단 생산시설을 갖춘 세계 반도체 리더로 자리매김했다”면서 뿌듯함을 표시했다.

이처럼 SK하이닉스가 실적을 기반으로 그룹 내 비중이 높아지면서 위상과 역할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지난해 말 그룹 정기 임원인사에서 최 회장의 ‘SK하이닉스 애정’은 극명하게 드러났다.

최고경영자(CEO)인 박성욱 부회장의 경우 고령에 무려 5년째 CEO를 맡아왔다는 점에서 한때 교체설도 있었지만 사상 최대 실적에 힘입어 유임되면서 6년째 CEO직을 수행하게 됐다.

사장 승진자가 3명, 전무 승진자가 14명에 신입 상무 27명이 배출되면서 모두 41명이 승격되며 ‘승진 잔치’를 벌였다.

최 회장이 지난해부터 SK하이닉스 사업장을 부쩍 자주 찾는 데다 SK그룹 차원의 행사가 SK하이닉스에서 많이 열리고 있는 것도 다른 계열사들의 부러움을 사는 이유로 거론된다.

지난해 4월 일본 도시바의 메모리 사업 인수전에서 SK하이닉스가 경쟁업체들에 뒤처졌다는 분석이 나오자 직접 일본을 찾아 인수전을 진두지휘했던 최 회장은 같은 해 9월에도 인수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또다시 방일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5년 M14 공장 준공식에 이어 오늘 M15 준공식에도 현직 대통령이 잇따라 참석했다”면서 “최 회장 으로서는 자신의 결단으로 인수한 기업이 이처럼 성장한 데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도기자

www.pdna.co.kr



INTENSIVE DNA CREAM
Protects the barrier of sensitive skins and helps revitalizing it by applying enriched nutritive cream.

P+DNA

50g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아데노신 함유

“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

P+DNA

피디엔에이 크림

피부관리샵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르는 크림으로 만나보세요.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아데노신 등 7가지 피부보호* 성분이 피부 재생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줍니다.

* Sodium DNA, 아데노신, 베타글리세롤/아스코르브산/아스코르브산 2-포스페이트, 올리고펩티드, 올리고펩티드, 올리고펩티드

물광피부도 동안관리도 크림 하나로

눈가, 입가 주름이 고민이라면 피디엔에이 크림으로 관리하세요. 풍부한 영양감, 짙은 수분감으로 주름개선을 도와줍니다. 자연스럽게 빛나는 물광 피부, 동안 관리 효과를 경험하세요.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원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070-4870-0708**